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8월 9일(금)

(윤력 7월 6일)

Пятница

9 августа 2024 г.

№ 31 (1209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8월의 두 번째 일요일은 러시아에서 건설 분야 종사자의 날로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공사 중인 사할린테크 캠퍼스.

(이예식 기자 촬영)

존경하는 동향인 여러분!

8월 9일은 세계 원주민의 날로 기념합니다.

이 훌륭한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땅은 낚싯대, 나나인, 에웬크인, 오로크인 등 원주민들의 고향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이어가고, 어업, 순록 방목, 사냥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배우고, 고유어와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주는 토착 원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이들의 독창적인 문화 보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사할린주에서 후손들을 위해 독특한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신성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족 간에 우정을 돈독히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할린주 원주민 여러분에게 이날을 축하드리며, 시대와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행복과 건강과 모든 일에서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 사할린주 정부 -

친환경 가스엔진 버스 22대 사할린에 도착

친환경 가스엔진으로 운행하는 버스 22대가 사할린주에 도착했다. 8월 6일(화)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5개 지역 지자체장에게 버스 열쇠를 전달했다. 이 버스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티몹스코예, 네웰스크, 흠스크, 코르사코브 지역 교외노선으로 운행된다.

9월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네웰스크 지역을 위해 28대의 버스가 공급돼야 한다. 2027년까지 버스 정차장을 개선할 계획인 가운데 대중교통 개선은 주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친환경 버스들은 <사할린주 대중교통 제반시설 개발과 도로산업> 지역 프로그램으로 구입했으며, 승객 운송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대중교통 제반시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동방경제포럼 방문 회의, 중국에서 조성

〈중국 광저우와 하이룽장성 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 간 협력 전망〉 동방경제포럼의 방문 회의가 8월 8일과 9일에 광저우에서 열렸다.

회의는 광둥성과 하이룽장성 지역 정부의 지원으로 러시아 연방 극동 및 북극개발부, 극동 및 북극개발공사 로스콩그레스재단이 주최했다.

러시아 연방 정부 부총리이자 극동연방관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 대표인 유리 트루트네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러시아 연방 전략적 협력 국가 중 하나로 양국 간의 관계는 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계속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오랜 시간 축적된 우호적 관계의 보전과 발전은 세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다. 동시에 세계 안정과 국가 간 신뢰성의 유지는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비롯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이 이번 방문회의에서 우리 중국 협력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물론 우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우리의 협력자들이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정부기관 및 극동연방관구 기업공동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러시아대표단은 방문회의에서 극동지역에 경제 및 투자 잠재력을 비롯해 협력 방면의 전망과 기획을 발표했다.

방문회의와 발표에는 첨단생산, 물류, 석유화학, LNG, 조선, 농산업 및 관광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 약 100명의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또한 러시아 대표단은 광저우에 있는 기업들을 방문한다.

광저우 방문회의에서 주요 주제에 대한 논의는 2024-동방경제포럼 사업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2024-동방경제포럼은 9월 3일(화) - 6일(금)까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 캠퍼스에서 진행되며, 로스콩그레스재단이 주최한다.

새고려신문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7,83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사할린주 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정부부처 간 위원회 구성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 지역에 불법고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주내 주요 정부부처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부처위원회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조직된 이 위원회는 불법고용의 사례들을 모니터링하고, 예방하는 일을 하며, 노동권의 범주 내 사할린주에서 고용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사할린주 주민 근로 및 고용청의 대표인 타치야나 바비츠는 "이 위원회의 창설은 합법적 노사관계와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에 불법고용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표명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이미 첫 번째 실무 그룹 회의가 열렸다. 그 결과 불법고용 문제에 따른 부처 간 상호작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사할린주 러시아 연방 사회보험과 연금재단부에 보고서 제출, 예산 외 자금으로 보험금 납입, 개인 소득세 납부의무를 고용주들에게 널리 알리기로 했다. 사할린 지역 불법고용에 따른 부처 간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된다.

네웰스크 지역, 태풍으로 피해 입은 30여 가구에 재정 지원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주 정부 회의에서 네웰스크 지역 피해 주민 지원 및 태풍 피해 복구가 주요 의제가 되었다. 네웰스크 지역이 이번 태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수십 채의 주택과 지하실, 공동주택의 뜰이 침수되었고, 36개 농지 유실 및 산사태가 발생했다. 일반 개인주택 가구가 조사된 가운데 피해자들은 네웰스크시, 고르노자워드스크, 콜호즈노예 마을 주민들이다. 33 가구가 이미 재정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가구들에게는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침수된 주택의 가구들에게는 지방예산에서 5만 루블리가 지급되며, 또한 지역 수장의 주도로 이 금액은 10만 루블리까지 확대된다. 농작물 유실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1만 루블리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건축자재로 피해 가구를 돕고, 자원봉사자들이 거동이 어려운 주민과 독거 노인들을 도우려 갔다.

한국과 일본에서 사할린 역사 연구로

지난 3일(토) 홋카이도대학교 대학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원 파이차제 스베틀라나 교수와 이준영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연구원이자 홋카이도대학교 관광학고등연구센터의 전문연구원은 10박 11일 일정으로 사할린을 방문했다. 이들은 사할린 역사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본지에서 여러 번 두 분을 소개한 바 있다.

러시아 출신의 파이차제 교수는 <홋카이도에서의 다문화화 과정에서 사할린 귀환자들의 역할>이란 기획으로 2013년부터 연구를 위해 수차례 사할린을 다녀갔다. 현무암 교수와 함께 '사할린 잔류자들' 연구서를 일본어와 한국어로 편찬했었고, 사할린한인과 일본인 가족을 포함해 다문화 가족 연구를 계속하며, 사할린 역사학자 진 율리아와 함께 사할린의 조선 및 일본 학교를 연구하기도했다.

이준영 연구원이 사할린한인사를 접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사할린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강제동원 이전 시기 한인의 사할린 이주사를 포함하여 보다 역동적인 사할린한인사를 연구하고 있다. 전문 분야가 일본학이어서 사할린에 관한 자료를 주로 일본에서 수집·분석하는 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파이차제 교수와 함께 하는 기획들도 여러 개가 있다.

이번 사할린 방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일제강점기 극동지역 한인의 사할린 이주와 역사의 기억 연구>와 일본 과학연구비 조성사업의 <식민지유산의 소비문화화에 관한 비교연구 - 일

본의 구 지배 지역에서 보는 기억의 계승과 망각> 기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두 학자는 공동연구하여 사할린의 한인을 비롯한 여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에 관하여 사할린을 방문하고,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진 율리아 박사가 협조하고 있다.

사할린에 도착한 날에 이들은 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북방의 열"저서의 저자인 니콜라이 비시넵스키 사할린 역사학자와 만나 마카로브 한인 역사 수집 정보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지난 6일(화) 이들은 마카로브 향토박물관을 방문하고, 박물관 견학하며, 마카로브 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마카로브 지역 향토박물관 고영순 관장은 이날 연구자들에게 비시넵스키가 저술한 마카로브 지역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선사했다. 이날 연구자들은 고영순 관장과 함께 한인들이 과거에 모여 살았던 조선인 마을(조선부락), 한인들이 일했던 제지공장 현장, 소방소, 전 일본 신사(시리투루신사) 현장 등을 돌아보고 많은 취재를 하였다.

다음날 이들은 코르사코브 향토박물관을 견학하고, 방향의 언덕을 비롯해 한인 정착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았다. 또한 코르사코브에 남겨져 있는 일제 건축물을 둘러보는 등, 도시 변천사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주로 가라후토 시대 현장을 돌아보고 취재했다. 9일-11일의 일정에서는 포로나이스크를 방문하고 선주민 역사에 관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처음 사할린을 방문한 이준영 박사는 "문헌으로만 확인해왔던 역사적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곳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과 소통하며 큰 감동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리고 5년 만에 사할린에 온 파이차제 교수는 "사할린 역사를 아무리 연구해도 아직도 모르는 일면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한다. 일본에서 온 파이차제 교수와 한국에서 온 이준영 연구원은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의 이주·생활사, 가라후토 시대 시설 등 연구를 계속 할 계획이다.

(배순신 기자의 글과 사진)

<오스트로와> 전국 청년 포럼, 사할린에서 진행

8월 6일(화) 로스몰로조쥬(러시아 청년정책청).행사 플랫폼에서 <오스트로와> 전국 청년포럼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공식 개막됐다. 포럼은 8월 5일(월)부터 11일(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다양한 지역에서 14세부터 35세까지 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전문가 500여 명 이상이 참가했다. 대부분의 포럼 참가자들은 사할린의 청년들이다. 청년들은 자신만의 기획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로스몰로조쥬로부터 장려금 100만 루블리를 받을 수도 있다.

개막식에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환영사를 전하며, 석유가스 분야와 관광, 석탄, 수산업, 운송 및 물류 분야에서 시행되는 유망한 기획들을 가지고 청년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할린 지역에서 이런 분야들은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하고 있으며, 사할린 지역에서는 수소에너지와 무인기 등 새로운 산업이 조성되고 있다.

사할린 지역에서 일하며 살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 진출 안내>플랫폼도 조성돼 이 플랫폼에는 현재 6,500개의 일자리가 등록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전문성 실현과 주택 구입의 기회를 조성하며, 고품질의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지원금 혜택, 예술과 스포츠 활동도 소개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이모저모

사할린 주민들-극한 체험 <광부의 광산>에서 자신의 저력을 시험

광부의 날을 맞아 <광부의 광산> 제 2회 익스트림 경주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었다고 경기 주최 측이 전했다. 경기는 8월 25일(일)에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는 악천후도 익스트림 스포츠인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다.

<광부의 광산> 경기에는 우글레고르스크 지역 주민들과 동부광산업 회사의 직원들이 참가할 수 있다. 이 행사는 행사 기념과 직접 관련된 스포츠 참가자들에게 상금을 수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경기에서 팀별 우승팀 1위에게는 10만 루블리, 2위 6만 루블리, 3위에 4만 루블리의 상금이 주어지며, 개별 참가자는 1위에 4만 루블리, 2위 2만5천 루블리, 3위에 1만5천 루블리의 상금을 수여한다. 경기에서 남성과 여성은 전례대로 각각 평가된다.

팀별 참가자들은 최소 여성 1명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익스트림 스포츠 참가자들은 20개의 다양한 장애들을 넘어야 한다. 주최 측은 지난해의 경험을 고려해 어떤 단계는 좀더 쉽게 하고, 어떤 경기단계는 좀더 어렵게 만들었다..

경기 진행은 사할린 광산기술전문학교 예전 운동장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에 대한 판정은 주 동계올림픽 예비스포츠 학교의 전문가들이 한다.

Сахалинцы-экстрималы смогут проверить свои силы в «Шахтерском забое»

Стартовал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Второй экстремальный забег «Шахтерский забой», который приурочен ко Дню Шахтер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аздник отметят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25 август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аже непогода не стала препятствие для экстремалов.

Участниками «Шахтерского забоя» могут стать жители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либо сотрудники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ЕМСО. Это сделано намеренно, чтобы призовой фонд достался спортсменам, имеющи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отмечаемому празднику.

Командам должно быть три человека, второе, третье места вручат 100, 60 и 40 тысяч рублей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а в личном зачете - по 40, 25 и 15 тысяч. При этом мужчины и женщины будут по-прежнему оцениваться отдельно.

В команде должно быть три человека (как минимум одна женщина). Всем спортсменам придется преодолеть 20 разнообразных препятствий. Организаторы

учли опыт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какие-то испытания сделают проще, а другие усложнят.

Турнир пройдет на бывшем стадион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рного техникума. Судить участников будут профессионалы из областной спорт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아레나>국민 경연에서 '고르니 워즈두흐' 2위 차지

사할린의 '고르니 워즈두흐'산악스키장이 국제적으로 참가하는 제 3회 <아레나> 모범적 스포츠 시설 국민 경연의 <스포츠·관광단지>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 및 관광단지 측이 전했다.

이번 경연에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를 비롯해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의 300개 이상의 스포츠시설들이 경쟁했다.

'고르니 워즈두흐' 측 홍보부는 "국민 경연의 참가는 러시아 연방 우수 스포츠·관광단지들의 운영 조직을 위한 현대적인 요구들에 따라 실질적으로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관광단지의 발전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기회였다.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는 '고르니 워즈두흐'의 전체 구조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방문객들의 공로다."라고 전했다.

우승 및 수상에 대한 시상식은 모스크바 전 러시아 박람회장에서 열린 <온 가족을 위한 스포츠 시설 운영조직의 현대적 해결책>콘퍼런스에서 진행됐다.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관광단지 측은 '고르니 워즈두흐'에서의 생활에 참여하고 지지해준 방문객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Горный воздух» занял 2 место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Арена»

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Горный воздух» занял 2-е место в III Национ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участием на образцовое спортивное сооружение «Арена» в номинаци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е комплекс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комплекса.

За звание лучшего боролись более 300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России, Белоруссии, Азербайджана, Армении и Узбекистана.

«Участие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на практике оценить и сравнить развитие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с современными требованиями к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ы лучших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РФ. Высокая оценка жюри является не только результатом упорной работы всех структур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но и заслугой наших посетителей», - поделились в пресс-службе.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

лей и призеров прошла на конференции «Современные решения в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ы спортивных сооружений для всей семьи» в Москве на ВДНХ. В СТК поблагодарили посетителей за поддержку и участие в жизни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사할린 연금 수급자, 버스 정류장에서 6만 루블리 든 가방 잊어

포로나이스크의 여성 연금 수급자(71세)가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과 6만 루블리가 든 가방을 잊어버리고 갔다.

7월 30일에 돈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이 여성은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당시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 여성과 나란히 있던 여성은 이 피해 여성이 가방 없이 가는 것을 살펴보며 서 있었다.

"어찌 됐든 재산의 법적 소유자에게 반환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않고, 스스로 분실물을 가져간 것이 되었다."고 전해진 가운데 분실물을 가져간 여성이 돈의 절반을 소비하여 경찰이 남은 금액을 압수하였고, 연금 수급자의 피해액은 3만 루블리에 달했다. 이는 범죄사건으로 처리돼 피의자는 외출금지 상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Сахалинская пенсионерка забыла на остановке пакет с 60 тысячами рублей

В Поронайске пенсионерка забыла на автобусной остановке пакет, в котором находился сотовый телефон и 60 тысяч рубле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омощью полицейских обратилась 71-летняя островитянка. Она потеряла деньги и гаджет 30 июля. Рядом с пенсионеркой на остановке стояла подозреваемая, которая видела, как сахалинка уходит без пакета.

«Однако мер по возвращению имущества законной владелице не предприняла, забрала его себе», - отметили в сообщении.

Половину денег островитянка успела потратить. Оставшуюся сумму изъяли сотрудники полиции. Ущерб составил 30 тысяч рублей. Возбуждено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Подозреваемая находится под подпиской о невыезде и надлежащем поведении.

8월 10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불세비크산으로 익스트림 경주 진행

8월 10일(토) 전국 체육인의 날 기념의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올림픽적 수직>불세비크산으로 익스트림 경주가 진행된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이 행사에 12세 이상, 의학적으로 금기사항이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8면에 계속)

〈오스트로와〉 전국 청년포럼, 사할린에서 진행

(2면의 계속)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포럼 참가자들에게 전하는 환영사를 로스몰로조지 대표 올레그 마카로브가 대독했다. 올해 〈오스트로와〉 청년포럼은 11년째로 5년 전에 연방 차원으로 개최되었다. 매해 이 행사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포럼에 6,154명이 등록하면서 이번 포럼은 전 역사상 기록적으로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오스트로와〉의 주요 주제는 사회적 진출이다. 포럼 참가자들은 3개 방면으로 나뉜 가운데 '교육' 방면에는 전국 각지에서 우수 대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모였고, '생산'방면에는 사할린 지역 핵심 경제개발 부문의 전문가들과 청년 기계기술자들이 연합했고, '최고' 방면에는 학생과 청소년들이 직업적 자기 결정을 목적으로 모였다.

'생산'영역의 대표 마리나 코스튜코와는 "우리는 항공, 석유와 가스, 서비스, 관광, 의료, 건설, 청년정책의 영역을 세분화했다. 학생들은 기업을 방문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연구하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청년들을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드미트리 신은 울리아놉스크 민간항공대학에서 공부하며, 조종사가 되는 꿈을 갖고 있다. 그는 〈오스트로와〉 포럼에 처음 참가하면서 "나는 2년 반 전에 사할린에 있었다. 〈오스트로와〉포럼 덕분에 운 좋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도시가 많이 변했다. 새로운 멋진 건물들, 건설현장, 녹지조성 등. 마치 다른 곳에 온 것 같았다. 그래도 신기하고, 친절하고, 다정한 환경은 그대로 있었다. 몇 번이고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다. 주지사로부터 사할린주의 발전에 대해 들었다. 항공기개발 기획은 특별히 내 관심을 끌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포럼 기간에 특기가 있는 청년들은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며, 기획을 제작하고, 사할린주 예비인재 구성원으로서 지역의 우수기업에서 견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포럼에서는 로스몰로조지의 장려금 경연이 진행되어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수기획 제작자에게 그 기획 실현을 위해 100만 루블리를 수여한다.

〈오스트로와〉 포럼은 참가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사할린 주민들에게도 대규모 행사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누구나 대규모 교육 행사장과 청년 공원에서 열리는 유익하고, 유쾌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포럼은 연방 청년사업청(로스몰로조지)과 사할린주 정부가 주최한다.

재외동포 입국시 '내국인 대우'? 정부 조치, 제대로 이행 안돼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재외동포들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동포 김모(37) 씨는 국민 입국심사대에 줄을 섰다가 공항 직원의 제지로 외국인 입국심사대로 가야 했다. 김씨는 공항 직원에게 "재외동포들도 한국인과 같은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직원은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안 된다"고 거절했다.

김씨와 함께 국민 입국심사대에 줄을 섰던 중국 동포들도 같은 이유로 외국인 입국심사대로 이동했다. 이들은 재외동포(F-4) 비자가 있다는 내용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출입국 당국의 조치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결국 김씨 측은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오래전부터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신속한 입국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여권 창구에서 대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출입국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반대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출입국 당국에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를 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내려보냈고, 올해 초에는 해당 사안에 관한 홍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도 지난 6월 출범 1주년을 맞아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개최하면서 "정부는 최근 재외동포들이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동포들이 모국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 조치는 2009년 처음 시행됐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3년 6월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을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재외동포가 내국인 대우를 받으려면 대면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이 있는 재외동포는 자동출입국심사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주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입국심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3월 입국한 A씨는 "국민 입국심사대에 줄을 섰는데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외국인 입국심사대 줄에 섰다"고 밝혔지만, 4월에 입국한 B씨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국민 입국심사대로 가라고 안내해줬다"고 소개했다.

동포사회의 한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됐지만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법무부가 출입국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 등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년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법률지원 사업 안내

재외동포청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법률상담 및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법률지원(동일인 증명, 가족관계정정, 성본변경)과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해주나요?

☞ 법무법인 덕수가 재외동포청과 계약을 맺어 본 사업을 수행합니다.

□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은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 (법률지원) 동일인 증명, 가족관계정정, 성본변경은 콜고 이후 1개월 동안 (2024년 8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모집한 이후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 (참고)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 본 사업의 마감기간인 11월 30일까지 상시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다음의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를 남겨주세요.
- 한국어: 조영관 변호사 (010-8848-7828)
- 러시아어: 서 드미트리 통역사 (010-2831-6208)
☞ 또는 Google Form을 통해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해주세요.
- 링크: (한국어) <https://forms.gle/vH9KYqJUQqWCvEe87>
(러시아어) <https://forms.gle/3wLbeVktSklAPh5c6>
- QR 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의 QR 코드를 비추신 뒤, 화면에 열리는 링크에 접속해주세요.

[KOREA]



☞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소 : chobyun@gmail.com

[RUSSIA]



(7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75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맞아 본사는 사진공쿠르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사할린 한인 역사〉,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사진.

• **출품수:** 3점 이상

• **사진규격:** 1,000x1600 픽셀의 JPG/JPEG 형식 파일 (5mb 이하), RGB

• **공모기간:** 2024년 9월 15일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은 2024년 9월 27일. 우수 작품은 시상식에서 전시.

사진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직위원회

ОБЪЯВЛЯЕМ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э коре синмун"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Тема "Моя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темы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Требования к работам: от 3-х фото, формат JPG/JPEG, размер 1000x1600 пикселей, объем не более 5 МБ, цвет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RGB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Лучшие работы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газете, а также выставлены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27 сентября 2024 г. .

Оргкомитет

새고려신문 창간 75 주년 기념

2024 한국어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연장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한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공모기간:** 2024년 9월 15일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ов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Углегорск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Углегорцы приобщились к национальным культурам на ежег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В семье единой". Для жителей района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корейские и бурятские народные танцы, песни, боевые искусства, каллиграфия и кулинария.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стартовал в городском сквере Углегорска в субботу, 3 августа. Гости с праздничной программой приехали к нам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глегор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На фестивале нашлось место и взрослым, и детям, все остались довольны. Желавшие могли приготовить блюдо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из крахмальной лапши(дзяпче), прош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а также могли поучиться боевому искусству тхэквондо.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водит фестиваль уже семь лет,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он прошел во второй раз. Мастер-классы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артнерами выступил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Углегорск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библиотека,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землячества Бурятии "Байкал" и ДК "Родина". Праздник прошел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И поколений связь, и нить традиций".

Молодежь АСК провела мастер-класс

Члены молодежной группы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СК) 3 август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Родные любимы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м "Движением Первых". Ребята провели мастер-класс "Шаг в самостоятельную жизнь". Он заключался в приготовлении на "скорую руку" кимчи из редиса, капусты, огурцов в двух вариантах, жареной колбасы и жареного риса по-корейски. Этот мастер-класс организовали для студентов, которые учатся за пределами Сахалина, любят корейскую кухню,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риготовить эти простые блюда, сообщила з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К Ю Ени.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АСК)



Информация дл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ъезжающих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С каждым годом количеств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осещающих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неукоснительно растёт. И самое первое, что приходится делать по прилёту в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это проходить паспортный контроль. В Корею, как и во многих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пропускные пункты разделены на два потока: для гражд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и для лиц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паспортами.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Кореи заявило, что на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ьно-пропускном пункт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эропорту Инчхон зарубежные корейцы могут проходить паспортный контроль в пунктах, предназначенных для граждан Кореи.

К сожалению, о данной привилегии знают не вс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оэтому по привычке проходят паспортный контроль в общей очереди со всеми иностранцами. Зарубежные корейцы имеют полное прав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иммиграционным контрольно-пропускным пунктом под электронным табло, на котором отображается корейский паспорт или отображается надпись «зарубежный со-

отечественник» (재외 동포).

На самом деле введение таких привилегий было начато ещё в 2009 году и сделано это был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зарубежные корейцы, приезжая в Корею, ощущали особое отношение и поддержку со стороны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о существующем правиле знали немногие.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Кореи и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недавно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все зарубежные корейцы, могут проходить паспортный контроль в пунктах для граждан Кореи. Данное правило действует не только для тех, кто имеет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й номер и длительно проживает в стране, но и на тех, кто въезжает на краткосрочный период. При вылете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есть также специальный коридор для ускоренного выхода в зону па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и таможенного досмотра для лиц старше 70 лет, детей до 7 лет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взрослых, которым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все, к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данным параметрам.

Источник: https://t.me/koryoin_globalnet

Зарубежных туристов больше всего впечатляет кулинария

Сеул, 8 августа – ИА РУСКОР. Иностранные туристы, посетившие Сеу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станавливались в среднем на шесть дней и тратили 2,84 миллиона вон (2058 долларов), сообщила Сеульская туристи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Опрос, проведенный с марта по ноябрь 2023 года среди 1600 респондентов, показал, что туристы сейчас тратят в городе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и денег, чем до пандемии. В 2019 году средний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составил 5,1 дня, а расходы составили около 1,89 миллиона вон. Увеличение расходов объясняется более высокой долей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на дальние расстояния из Европы и США, в отличие от ранее преобладавших поездок на короткие расстояния азиатских туристов. Кулинарные впечат-

ления были главной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ью: 97,4 процента туристов занимались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м туризмом. Популярными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объектами были дворцы и исторические объекты (70,4 процента),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и тематические парки (54,6 процента), а также парки, тропы и курорты (49,3 процента). Мендон был самым посещаемым районом (85,9 процента), за ним следовали Хондэ (52,8 процента) и район Каннам (45,9 процента).

Показатель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посещением Сеула неуклонно растёт, достигнув 4,53 балла из 5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 сравнению с 4,34 балла в 2019 году и 4,25 балла в 2018 году. Число намерений посетить Сеул повторно также возросло до 4,61 по сравнению с 4,39 в 2019 году.

Проект правовой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озвращающихс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 2024 году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намерено осуществлять проект юридической консультации и сопровождения для стабильной адапт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их членов семей, возвращающихс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 Корею. Просим вас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анной поддержкой.

1. Содержание

□ какую помощь можно получить

- Поддержка в идентификации одного и того же человека
- Исправление реестра семейных отношений
- Изменение фамилии
- Юридиче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 кто оказывает данную поддержку

- юрид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ТОКСУ» по поручению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 кто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данную помощь

-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их члены семьи, получившие поддержку для постоянного возвращения и обустройств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5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когда можн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 (юридическая помощь) Заявления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месяца после официального объявления (до конца августа 2024 года). После этого будет формироваться утвержденный список заявителей.

※ (Внимание!) Лица, не подавшие заявление в течение данного срока, могут быть не включены в утвержденный список заявителей.

-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Дата окончания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30 ноября 2024 г. До данной даты мы принимаем все заявления.

□ как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 ☞ по телефону или через смс
 - корейский язык: 조영관 변호사 (010-8848-7828)
 - русский язык: Ше Дмитрий переводчик (010-2831-6208)
- ☞ через интернет Google Form
 - ссылка : (на корейском) <https://forms.gle/vH9KYqJUQqWCvEe87>
 - (на русском) <https://forms.gle/3wLbeVktSkpAPh5c6>
- по QR коду: отсканируйте телефоном нижеуказанный код

[KOREA]



[RUSSIA]



- ☞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 имейл : chobyun@gmail.com

(Окончание на странице 7)

Визовые послабления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строителей

Сеул, 6 августа – ИА РУСКОР.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Южной Кореи объявило о планах пересмотреть и, возможно, смягчить критерии для выдачи виз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 работникам, что может существенно повлиять на строительную отрасль страны, которая сталкивается с острой нехваткой рабочей силы. Строительная отрасль неоднократно заявляла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более гибкой визовой политики, особенно в отношении визы E-7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22 ию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сообщило, что оно консультируется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и проводит внутренние проверки относительно смягчения требований к визам E-7. Это следует за предложениями, полученными от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торые включали призывы к смягчению критериев для получения визы E-7. Строительный сектор Южной Кореи сталкивается с обостряющейся нехватк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из-за старения отечестве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и нежелания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заниматься высокоинтенсивным физическим трудом. Виза E-7, которая выдается иностранным специалистам, занимающимся конкретными видами деятельности, определенными министром юстиции, требует наличия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в смежной области или опыта работы более пяти лет. Однако инсайдеры отрасли утверждают, что эти строгие требования вынуждают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визам E-9,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м для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возвращаться в свои страны, усугубляя нехватку рабочей силы.

«Виза E-7 может продлеваться каж-

дые три года, что позволяет работникам оставаться без возвращения в свою страну и сопровождаться семьями, что может повысить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и уровень квалификации на месте», — сказал Пак Кван Бэ, отраслевой эксперт. «Поскольку работодатели должны гарантировать личность работников, лояльность к компании повышается, что снижает социальные издержки, связанные с текучестью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иза E-9 разрешает пребывание максимум на три года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продления еще на 1 год и 10 месяцев по запросу работодателя,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до 4 лет и 10 месяцев. Однако основным требованием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является смягчение критериев для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визы E-9 в визу E-7, тем самым сохраняя квалификацию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которые уже приобрели опыт работы в Южной Кореи.

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от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не нова, но текущи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и, включая старение населения и тенденци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молодежи, усилили потребность в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е. Пересмотр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и потенциальное смягчение визовых требований могут оказать столь необходимую помощь сектору, гарантируя, что проекты будут завершены в срок и в рамках бюджета. Инсайдеры отрасли, однако, обеспокоены сроками. «Даже в этот момент многи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рабочие, въехавшие по визам E-9, вынуждены возвращаться в свои страны из-за строгих требований для перевода на визы E-7. Ожидание до конца года только увеличит убытки местных компаний», — сказали он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Конференция REAIM состоится в Сеуле 9-10 сентября

9-10 сентября в Сеуле состо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ответственному использованию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 REAIM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Её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являються совместно РК, Нидерланды и Сингапур. 1 августа посол по особым поручениям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Ли Вон Ик, возглавляющий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ую группу,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 о предстоящей 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90 стран, чьи посольства работают в Сеуле. Он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согласованных усилий для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как технологии, которая может преобразовать всю военную сферу. Первая конференция REAIM состоялась в Гааге в февр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гранвойскам КНДР переданы 250 ракетных пусковых установок

Пограничным войска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ереданы 250 пусковых установок новых тактически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церемония передачи проходила в присутствии лидера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а, который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отметил, что укрепление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является важнейш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делом наряду с улучшением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Точные тактико-техничес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пусковых установок и ракет не сообщаютс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активизировала разработку новых вооружений, в том числе, реактивных систем залпового огня (РСЗО). В 2023 году на вооружение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были поставлены комплексы РСЗО калибра 600 мм, которые, как заявляют в Пхеньяне, мог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запуска тактическ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Мужчины всё чаще берут отпуск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На долю мужчин пришлось треть взявших отпуск по уходу за ребёнком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этого года. Как сообщили 5 авгус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РК,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69.631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и в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первое пособие по уходу за ребёнком о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страхования занятости. Это на 3,2%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Среди них 22.460 мужчин, что на 15,7%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оля мужчин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ла порог в 30%. В 2016 году она составляла 8,7%, а в прошлом 28%. 43,5%, взявших отпуск по уходу за ребёнком, работают в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ях с численностью сотрудников более тысячи человек.

2-4 августа фильм «Пилот» - лидер прокат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комедийный фильм «Пилот» с Чо Чжон Соком в главной роли в период со 2 по 4 августа вышел в лидеры проката. Его посмотрели более 1 млн 90 тыс. посетителе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инотеатров. На долю фильма пришлось 54% кассовых сборов за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а с момента премьеры фильм посмотре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 млн 740 тыс. человек. Герой фильма – бывший пилот, который, потеряв работу, маскируется под женщину, чтобы продолжить карьеру. Приняв облик своей сестры, он получает должность пилота в авиакомпании и становится героем после успешной аварийной посадки. Голливудский комедийный боевик «Дэдпул и Росوماха» посмотрели около 261 тысячи зрителей, и он занял второе место по просмотрам.

Премьера второго сезона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состоится 26 декабря

Премьера второго сезона сериала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состоится на стриминговой платформе Netflix 26 декабря. Третий сезон находится в разработке, и его выпуск запланирован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сообщил 1 август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Netflix. Первый сезон сериала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стал мировой сенсацией 2021 года, набрав само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часов просмотра в истории Netflix. Режиссёр Хван Дон Хёк и актёр Ли Чжон Чжэ были удостоены премии «Эмми». Во втором сезо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история главного героя Сон Ги Хуна в исполнении Ли Чжон Чжэ, который, несмотря на победу в игре, решает не ехать в Америку.

Из-за экстремальной жары в РК в этом году погибли 13 человек

За минувшие выходные 3-4 августа от жары умерло пять южнокорейцев,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общее число умерших от природных катаклизмов достигло с начала года 13 человек. 3 августа в городе Кванчжу и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три случая смерти от заболеваний, связанных с жарой. Двое мужчин в возрасте 90 лет были найдены мёртвыми 4 августа в городе Сунчхон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3 августа в этом году 1.546 человек обратились за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ью в связи с заболеваниями, связанными с жарой. Волна экстремальной жары охватила страну с конца июля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сезона дождей, и, по прогнозам, жара продлится ещё как минимум 10 дней.

RKI

Приезжают работать, учиться, создавать семьи

Сеул, 29 июля – ИА РУСКОР.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ехавших в Южную Корею в поисках работы, выросло более чем на 25 процентов в 2023 году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и достигло второго по величине показателя за всю историю.

По данны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реи,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соискателей работы, прибывших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казало рост на 25,5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22 годом и достигло второго по величине показателя с 2000 года, когда агентство начало собир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данные. Южная Корея увидела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в 176 000, приехавших на работу в 2008 году. П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агентства, рост произошел на фоне того,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сширило квоту на не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рабочие визы (Е-9)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и смягчило правил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южнокорейцев за рубежом. Около 21 процента иностран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иехали с целью краткосроч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17,3 процента — для обучения и других програм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а 12,1 процента — для

заключения брака и получения постоянного вида на жительство.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странах, 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Южную Корею прибыло 132 000 китайцев, 71 000 человек из Вьетнама и 35 000 человек из Таиланда.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покинувших стран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ыросло на 30,5 процента и составило 319 000 человек,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чистый приток иностранцев составил 161 000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как владельце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аспортов, так и иностранцев, число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игрантов выросло на 13,5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и составило 1,28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ммигранты — это те, кто совершил трансграничные перемещения, оставаясь в стране более 90 дней. Из общего числа прибывших число выросло на 15,2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и составило 698 000 человек, а число покинувших страну увеличилось на 11,4 процента и составило 577 000 челове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что привело к чистому притоку в размере 121 000 человек, что стало вторым годовым приростом после пандемии COVID-19,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анные.

Онлайн-платформа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еул, 31 июля – ИА РУСКОР. JobKorea, крупнейша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онлайн-платформа по подбору персонала, представила эксклюзивную платформу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соискателей, а также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хотят нанять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огласно JobKorea, платформа представила сервис KLiK, аббревиатуру слов «Начать жизнь в Корее», на веб-сайте платформы: www.jobkorea.co.kr. «Компания возглавила национальный рынок онлайн-подбора иностранных соискателей через свой веб-сайт JobKorea и Albatop, дочернюю платформу для работников, занятых неполный рабочий день», — говорится в пресс-релизе офици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JobKorea. «Мы использовали наше ноу-хау о рынке труда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чтобы внедрить KLiK. Это предоставит различ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иностранным соискателям и в то же время поможет местным фирмам найти здесь идеаль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тремясь преодолеть языковой барьер, KLiK предлагает услуги перевода на 28 различных языков. Он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ляет таланты, которых компании по

найму ищут через службу переводов. Кроме того, в нем отображается статус визы, на который набираются сотрудники компании, занимающиеся наймом, с требуемым уровнем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предпочитаемым уровнем образования и опытом работы. Пользователи JobKorea или Albatop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оступ к KLiK, используя свой существующий ID. «Мы изучили их потребности и трудности при поиске работы в Южной Корее», — сказал чиновник.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мы планируем внедрить индивидуальную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ую услугу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соискателей, а также предложить сервис подбора талантов для компаний по найму на основ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Чтобы отпраздновать внедрение сервиса KLiK, JobKorea запустила розыгрыш призов, который продлится до 31 августа. Тем, кто устроится на работу через KLiK, будут вручены MacBook Air, ваучеры Baemin и подарочные карты NaverPay в качестве призов. Победитель конкурса будет объявлен на веб-странице мероприятия JobKorea 13 сентября.

Отделения банков и банкоматы переходят в онлайн

Сеул, 31 июля – ИА РУСКОР. Около 83,2 процента банковских услуг в Южной Корее, связанных со снятием средств и пополнением банковских счетов,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онлайн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этого года.

Согласно Систем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татистики Банка Кореи, доля онлайн-банкинга в общем количестве финансовых переводов между счетами увеличивалась каждый квартал с 79,8 процента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2023 года. Это с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за всю историю. Онлайн-банкинг — это услуги, доступные через домашнюю страницу банка или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начиная от денежных переводов и заканчивая подачей заявок на получение кредита.

Жители Южной Кореи стали больше полагаться на онлайн-банкинг с тех пор, ка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первые начало подсчет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2005 года, когда 16,5 процента финансовых переводов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онлайн. Впервые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2018 года этот по-

казатель превысил 50-процентную отметку. Для сравнения, только 4,1процента услуг, связанных со снятием средств или внесением депозитов,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этого года были оказаны через фактический банковский прилавок, что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низ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за всю историю. Доля таких услуг через банкоматы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составила 11 процентов, что также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низ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за всю историю.

По мере того, как все больше людей предпочитают использовать свои телефоны и компьютеры для банковских операций, все больше банков сокращают количество своих отделений и банкоматов. Самая последняя статистика Банка Кореи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в четвертом кварт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стран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3 905 отделений местных банков, что на 5666 меньше, чем в четвертом квартале 2013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банкоматов также сократилось до 20 308 с 31 128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Для дронов нет недоступных адресатов

Сеул, 1 августа – ИА РУСКОР. Министерство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Южной Кореи заявило о запуске первой в стране обще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е доставки с помощью дронов для повышения повседневного удобства жителей отдаленных островов, региональных районов и национальных парко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ервоначально сервис будет доставлять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предметы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 предметы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с учетом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есу и доступ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расширить сервис, чтобы в будущем охватить большие объемы и более широкую базу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служба доставки K-drone будет охватывать 32 островных округа, 17 региональных парковых зон и один порт в 14 муниципальных юрисдикциях. Хотя первоначально услуга была запущена 19 июля в трех

островных округах недалеко от острова Чеджудо, полномасштабные операции должны начаться в августе. Услуга также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жителям Йосу,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Чолла, Сесана,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Чхунчхон и Инчхона, а также парковых зон в Почхоне, провинции Кенгидо, Намвоне,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ая Чолла, Чханвоне,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Кенсан и порта Пусан.

Дроны могут перевозить до 3 килограммов груза за доставку, а также позволяют жителям изолированных районов отправлять обратные посылк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где расположены центры доставки K-drone. Сюда входят рыба, выловленная на местном уровне, или выращенные на острова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культуры, региональные фирменные продукты из парковых зон или оборудование с судов, все это может быть доставлено в отдаленные районы страны с помощью сервиса.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ась клиник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В нов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орпусе на улице Леоно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работала клиника «Медскан Сахалин». Международный уровень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теперь бесплатно доступен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ботать в клинике пригласили лучших докторов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они будут передавать опыт и островным специалистам.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Медскан Сахалин» сегодня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н отметил, что запуск клиники – важный шаг в развитии остров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Здесь объединилис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новейше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филиал медицинского вуза для решения кадрового вопроса. Помощь жителя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лучают бесплатно – по полису ОМС. Прием пациентов в стенах передов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чреждения уже стартовал.

– Мы хотим,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никуда не уезжали лечиться. Поэтому привлекли на Сахалин команду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Медскан» обладает самыми передов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И те специалисты, которые недавно делали операции в Москве и Петербурге, приехали работать у нас. Мы не экономим на оборудовании – установили лучшее, что есть сегодня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у нашей клиники есть преимущества – люди, техника,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ое лечение. Самое главное – мы любим пациентов и хотим ухаживать за ними, чтобы они жили долго,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едскан Сахалин» – это клиника полного цикла,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 диагностика, лечение, реабилитация и медицинская профилактика. Основная иде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непрерывность ухода за пациентом, начиная с момента обращения к врачу и заканчивая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после лечения.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открывается амбулатор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Здесь установлено самое современное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В октябре намерены осуществить второй этап – запустить лабораторию, дневной стационар и реабилитацию. На третьем этапе – в начал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 откроют круглосуточный стационар и операционный блок.

– «Медскан» сегодня работает в 105 городах в 31 регионе России, и мы гордимся, что теперь наши специалисты заботятся и о здоровье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В клинике ведут прием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врачи, в том числе из «Медскан Хадассы» – филиала ведущей израильской клиники в России. «Медскан» – это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тандарты сервиса, это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То, что ранее оказывалось чаще всего в частных клиниках, теперь возможно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истем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ы благодар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гиона и лично Валерия Игоревича Лимаренко за поддержку и быстрый старт проекта, – подчеркнула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Медскан», кандидат медицинских наук, Ирина Либерман.

В клинике установили перед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малейших нарушений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 У нас, к примеру, представлен уникальный рентген-аппарат Shimadzu.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аналогов ему нет. Я недавно читал лекции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рассказывал коллегам, и они очень удивились: а как мы сумели? Та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мало кому удастся получить. На сегодня это ведущий аппарат, он выдает лучшее качество картинки,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рентгенолог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Пшекарский.

Работать в новой клинике будут только специалисты, подтвердившие высочайший уровень квалификации. Доктора из лучших клиник Мо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Екатеринбург, Новосибирска теперь помогут сахалинским пациентам.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имеют несколько медицинских специализаций – это дает комплексный взгляд на здоровье пациента. Врач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передавать им знания и опыт, в том числе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ейчас специалисты ведут прием более чем по 20 направлениям медицинской науки. Постепенно их число будет увеличиваться. В март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уже более 80 врачей по 30 направлениям.

Кроме того, клиника станет базой д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Здесь будут готовить кадры для островной медицины. Для студентов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лечебные мощности учреждения, и они смогут на практике осваивать материал, пользоваться самым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учиться у лучш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 Нужно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ребята могли работать в клинике во время обучения,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Это абсолютно верно, Валерий Игоревич, – поддержал проректор ТГМУ Сергей Лебедев. – Учить врача в аудиториях – это позавчерашний день. Книжки можно читать, где угодно. А мы хотим открыть студентам и ординаторам возможность практиковать. Сахалин технологичен в высшей степени по диагностике, по развитию хирургии одного дня. Владивосток – большой город, но вы здесь впереди.

Отметим, компания «Медскан» – один из лидеров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екто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России.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холдинга обеспечивают полный спектр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о передовым мировым протоколам. Клиника внедряет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области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орфа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и паллиативной помощи, ведет широк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ую работу.

Более 30 пострадавшим во время циклона семьям из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предоставили материальную помощь

Ликвидация последствий циклона и помощь пострадавшим стали основной темой заседа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ое провел 5 август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ибольший удар стихии пришелся на Невельский район – здесь подтопило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частных домов, подвалы и дворы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сошло 36 селей и оползней.

5 августа в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с раннего утра комиссия начала обследовать домохозяйства в частном секторе. Среди пострадавших – жители Невельска, Горнозаводска и Колхозного. 33 семьи уже получили матери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остальные получат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Из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жителям подтопленных домов выделяют по 5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эту сумму увеличили до 100 тысяч. Кроме тог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выплачивать еще по 10 тысяч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потерянный урожай на смытых огородах. Пострадавшим помогут также со стройматериалами –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планируется доставить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Вечером начнут работать волонтеры – они будут приходить на помощь малоимущим жителям и одиноким пожилым людям.

– Сегодня необходимо обойти все дома и выяснить, какая помощь нужна людям. К каждой ситуации подходить индивидуально. С выплатами затягивать нельзя! Если жилье стало непригодным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необходимо оперативно решать жилищный вопрос.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приводите в порядок город. Убирайте всю грязь со дворов и из подвалов, – поруч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о время мощного ливня подтопило 10 подвало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 3 в Горнозаводске и 7 в Невельске. В уборке задействована вся муниципальная коммунальная техника.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привлечена спецтехник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Холмского, Долинског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 Сил и средства хватает. Нам привезли тепловые пушки и мотопомпы, чтобы все просушить. Прибыли специальные автомобили – илососы. Будем откачивать грязь из подвальных помещений и работать до полного устранения последствий циклона,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Невель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Алексей Шабельник.

Во время мощного ливня сошло 36 селей и оползней. Один из них – на частный дом на Нагорном переулке, жиль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не подлежит. Житель получил небольшую травму, и ему оперативно оказали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Грязевыми массами затопило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дворов – все они уже расчищены.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не работают два детских сада в Горнозаводске и Невельске, где подтопило подвалы и вышло из строя оборудование. Ребят временно перевели в соседние детские сады. Два оползня сошл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етского сада и школы №2 в Невельске. К расчистке приступят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Муниципальные дороги в проезжем состоянии, некоторые – в одну колею. Одна дорога к частным домам на улице Сельской обрушилась. К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м работам приступят, когда спадет вода. Временно ограничено движение для всех видов транспорта на участ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й автодороги Невельск – Томари – аэропорт Шахтерск.

Напомним, в субботу, 3 августа, в Невель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выпало 70 мм осадков. Четыре семьи эвакуировали, сейчас в пункте временного размещения находятся девять человек. В районе действует режим ЧС.

Кадровые лифты и управление талантами: на Сахалине разрабатывают стандарт развития карьеры молодёжи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ёжн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Va» платформы Росмолодёжь.События прошла экспертная сессия «Карьера как инструмент развити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Маститые эксперты и молодёжь вместе разбирались в вопросах нехватки кадров и привлечения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регионы.

В сесс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рупных российски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трекеров Росмолодёжь.Карьера и Росмолодёжь.Бизнес, участники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и молодёжные эксперты. Результатом двухдневной сессии стал стандарт развития карьеры молодёжи. Его доработают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ОстроVa», который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5 по 11 август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егодня – лучшее место для построения карьеры. В ходе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создается свыше 15 тысяч новых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 Россия сегодня движется на Восток, как в свое время, при Петре I, двигалась на Запад. А сейчас главное конкурентное поле находится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и Сахалин – в центре этих событий.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едеральных властей мы строим кампус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С этого года каждому студенту мы выдаем карьерный план – это пошаговая инструкция к будущему. Нам нужны специалисты в сфере нефти и газа, транспорта и логистики, рыбодобывающего комплекса,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А также для новых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и беспилотных авиасистем. Но карьера – это не тольк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рост. Это дом, семья, творческая реализация,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островах работает программа Карьера.Дом.Се-

мья, которая объединяет все эти направления. В регионе строят крупные жилые микрорайоны со всей необходимой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и помогают молодёжи через различные механизмы приобрести жильё. Повышается качество и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ы, расширяются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создаются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интересного и полезного отдыха.

– Форум «ОстроVa» способствует тому,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людей узнали о Сахалине. Важно, что в регионе университет находится в плот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Я всем привожу Сахалин в пример. Такая мощная поддержка позволяет вузу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двигаться вперед и развивать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впечатляющей скоростью создается кампус. Хотя он входит во вторую очередь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ети кампусов в России, Сахалин движется со скоростью первой очереди. Это и есть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льга Петрова.

– Моё первое впечатление от Сахалина: почему так чисто? Почему так много цветов? Хочу, чтобы каждый студент в России узнал об островах больш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Здесь реализуются масштабные проекты, для которых нужны люди. У молодых людей гораздо больше карьер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не в Москве, а именно в регионах, – уверена директор по развитию В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уда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дежда Сладкова.

Она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а важность развития системы наставничества для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егодня работодатели тратят большие средства и силы на то, чтобы привлечь новых сотрудников, а практика дальнейшего сопровождения специалиста не развита. Из-за этого четвер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уходит после первого года работы. В стандарте развития карьеры, разработанном на «ОстроVax», посвящен отдельный параграф.

– На площадке форума присутствуют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мпаний-агрегаторов вакансий,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наша задача здесь – устранение кадрового дефицита в глобальном смысле. Помимо этого, ещё и навигация молодых людей в приоритетной отрасли экономики. Обмен экспертизой позволяет нам предлагать новые варианты для повышени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у молодёжи той или иной сферы или компании. Отрадно, что коллеги тоже отметили тенденцию, что работодатель сегодня – это не только про зарплату и про условия, но ещё и про миссию, – сказал советник руководителя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Олег Макаров.

– Это значимая сессия в масштабах страны. Дело в том, что Мастерская управления «Сенеж» занимается темой развити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У нас есть профильная Мастерская, в которой мы собираем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со всей России и обучаем команды, чтобы люди в регионах могли качественно заниматься удержанием и привлечением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нам кажется, что один из самых интересных опытов – 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десь пилотируется стандарт развития карьеры, настроены фильтры для встраивания молодёжи в экономику, народное хозяйство.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проводится эта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Этот опыт необходимо изучать, тиражировать на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применять», – рассказал первый проректор Мастерской управления «Сенеж» Сергей Бочаров.

Отметим, более 500 лидеров, управленцев, аналитиков,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кадровой политике и управлению персоналом, сотрудников предприятий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5 лет собрались на «ОстроVax».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ают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Росмолодёжь)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здана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нелегальной занятости

С целью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нелегальной занятост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создать межведомственную комиссию,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й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едущи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области.

Комиссия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мониторингом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ем случаев нелегальной занятости, а также принимать меры для улучшения регулирования занятости на островах в рамках трудового права.

«Создание этой комиссии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шагом к легализации трудовых отношений и обеспечению прав работников, – комментирует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тьяна Бабич. – Уверены, что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мы сможем преодолеть проблемы нелегальной занятости в регионе».

Первое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уже состояло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ами и ведомствами по вопросу нелегальной занятости. Кроме того, решено провести повсеместное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работодателей об обязанности выплачивать НДФЛ и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во внебюджетные фонды, подавать отчетную документацию в отделение Фонда пенсионн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седани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нелегальной занятост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ежеквартально.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24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 안내

(3면의 계속)

2 법률지원

□ 법률지원은 정확히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 ☞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지원합니다.
 - ① (동일인 증명 지원) 러시아와 한국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영어표시 등)이 서로 달라 불편을 겪으시는 경우 지원합니다.
- < 예 시 >
 - (사례 1) 러시아 여권의 생년월일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 (사례 2) 러시아 여권에는 성이 리(Li)이나, 대한민국 여권상 성이 이(Lee)인 경우
 - (사례 3) 러시아에서는 ‘문’이었었는데, 대한민국 호적에는 ‘김’으로 성이 바뀐 경우

- 필요서류 : 1) 여권(러시아, 한국) 2) 국적취득 사실증명서(한국, 인터넷발급 가능), 3) 기본증명서-상세(한국), 4) 주민등록증(위임장 작성용)
 - ※ (참고) 한국과 러시아 양국 여권상 성명이 다른 복수국적자의 경우 우리나라 여권에 러시아 여권에 표시된 이름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가까운 관할 구청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여권에 해당 이름을 표기하여 우리나라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지원)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녀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수정)하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 < 예 시 >
 - (사례1) 부모/자녀 관계임에도 러시아 또는 한국의 호적과 정보가 달라져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별도로 만들어진 경우
 - (사례2)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이름의 표시가 다른 경우

- 필요서류 : 1) 여권(러시아, 한국)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상세(한국), 4) 제적등본, 5) 유전자검사 결과표, 6) 주민등록증(위임장 작성용)
 - ※ (참고) 가족관계확인을 위하여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력기관을 통하여 기존 소비자가 대비 30% 할인된 금액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협력기관 : 다우진유전자연구소
 - 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27, 가산A1타워 1228호)
 - 연락처 : 1566-3313
- ③ (성본변경 지원) 러시아에서 사용하던 성(Family Name)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뒤 임의로 변경된 경우 원래대로 변경하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 < 예 시 >
 - 러시아에서 결혼 후 남편의 성(Family Name)으로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였는데(“남00”) 한국에서 국적취득 과정에서 호적에 따라 아버지의 성으로 직권변경(“김00”)된 경우

- 필요서류 : 1) 여권(러시아, 한국)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상세(한국), 4) 혼인증명서, 5) 주민등록증(위임장 작성용)
- **접수 후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 접수 (온라인/유선/마을방문) → 지원대상 선정 → 상담 → 법률지원의 순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 법률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즉시 담당변호사가 배정되고 세부상담을 거쳐 소송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지원합니다. 상담 및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는 모두 재외동포청에서 지원하여 당사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참고) 변호사 보수 외 인지송달료, 유전자검사 비용 등 실비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2 법률상담

- **무엇을 상담해주시나요?**
 - ☞ 국적·출입국·가족관계 등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국내 정착에 관한 사항 중 법적 검토 및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 (참고) 단, 개인적인 민·형사 사건 등에 대한 조언 및 상담은 불가합니다. 법률상담이 아닌 법/제도 개선 문제나 정책 제안은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 접수 및 상담예약 (온라인/유선/사무실 방문) → 상담 → 법률지원의 순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 온라인 또는 전화 상담이 어렵거나,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로 방문이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함께 시행합니다.
 - ☞ 모든 법률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찾아가는 법률상담: 9월~11월 시행**
 - ☞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정확한 답변을 받기 어려우시거나, 용역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동포분들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살고계신 마을로 찾아가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 ※ (참고) 찾아가는 법률상담은 기초사항 안내&질의응답(1시간) 이후 개별상담(2시간)으로 진행됩니다.
 - ※ 지역 방문 일정은 조정중 .
 - 정확한 일정은 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지역(마을) 회장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 ☞ 법무법인 덕수 : 조영관 변호사 (010-8848 - 7828)
- ☞ 지구촌동포연대(KIN) : 최상구 대표 (010-8149-2643)
- ☞ 러시아어(통역) : 서 드미트리 (010-2831-6208)

(출처: 재외동포청)

Проект правовой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озвращающихс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 2024 году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анице 4)

2 Юридическая поддержка

□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юридическая помощь

- ☞ **3 типа поддержки**
 - ① Поддержка в идентификации одного и того же человека: личные данные (имя, дата рождения и т.д.) Кореи и России после опреде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отличаются друг от друга, поэтому в России возникают неудобства при совершении юридических действий.
- < например >
 - Дата рождения в российском паспорте отличается от корейского семейного реестра.
 - (Фамилия 리(LI) в российском паспорте, а в корейском 이(LEE)
 - В российских документах фамилия МУН, а в корейских КИМ

-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1) загранпаспорт (российский и корейский) 2) удостоверение о получении гражданства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через интернет), 3) основн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 подробное (корейское) 4) 주민등록증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для заполнения доверенности)
 - ※ (Внимание!) Если у вас второе гражданство и имена в корейском и российском паспортах разные, вы можете добавить имя, указанное в российском паспорте, в корейский паспорт. Вы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повторный выпуск корейского паспорта, посетив ближайший районный офис с российским паспортом и вписать свое имя в корейский паспорт.
- ② (Внесение поправок в реестр семейных отношений) Если в корейском реестре семейных отношений не зафиксирована связь между родителями и детьми, то оказываем помощь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данных отношений.
- < например >
 - Дети не вписаны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в реестр семейных отношений
 - ФИО или дата рождения записаны с ошибками

-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1) загранпаспорт (российский и корейский)2) 가족관계증명서 (документ о род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ях), 3) основн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подробное) 기본증명서-상세(한국), 4) выписка эл.документа 제적등본, 5) тест ДНК 6)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для заполнения доверенности)
 - ※ (Внимание)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ия семейных связей может потребоваться генетическ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ДНК). Через партнер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вы можете пройти генетическ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со скидкой 30% по сравнению с существующим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ми ценами.
 - 협력기관 : 다우진유전자연구소 Партнер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다우진유전자연구소
 - адрес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27, 가산A1타워 1228호)
 - телефон : 1566-3313
- ③ Изменение фамилии: если в Реестре семейных отношений произошло изменение фамилии при определении гражданства
- < например >
 -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в брак взяла фамилию мужа, а после приезда в Корею пришлось поменять на фамилию отца.

-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1) загранпаспорт (российский и корейский)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상세(한국), 4) 혼인증명서, 5) 주민등록증(위임장 작성용)
- **как организован процесс и какие расходы есть посл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 ☞ Заявление (онлайн/заочно/лично) → утверждение заявителя → Консультация → Юридическая поддержка
 - ☞ Если вы выбраны получателем юридической поддержки, вам сразу же будет назначен адвокат и после детальной консультации будет обеспечено сопровождение всех необходимых процедур, включая судебные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а. Все гонорары адвокатов, понесенные в ходе консультаций и суд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оплачиваются департаменто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 ※ (Внимание!) Заявитель оплачивает фактические расходы, такие как плата за почтовые расходы и стоимость ДНК теста.

2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Мы предоставляем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требующим юридической экспертизы и экспертных знаний относительно рас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озвращающихс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жительство в Корею, таких как гражданство, иммиграция, семейные отношения и т.д.
- ※ (Примечан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и уголовным делам невозможны. Консультации могут быть ограничены по вопросам улучшения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системы или политическим предложениям, которые не являются юридической консультацией.
- **процедура и расходы посл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 ☞ Заявление (онлайн/заочно/лично) → утверждение заявителя → Консультация → Юридическая поддержка
 - ☞ Мы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ляем выездные юридиче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для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у которых возникли трудности с доступом к онлайн-консультациям, или по телефону, или у которых возникли трудности с посещением офиса нашей юридической фирмы «Токсу».
 - ☞ Все юридиче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бесплатно.

□ **выездные юридиче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сентябрь - ноябрь**

- ☞ Для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испытывают трудности с получением точного ответа по телефону или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или не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и посетить офис юридической компании, юрист лично выезжает в места компак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заявителей.
- ☞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какие-либо вопросы, пожалуйста, проверьте расписание (на уточнении) и примите участие.**
 - ※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на месте проводится в виде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консультации (2 часа), которая следует после изложения основ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опросов и ответов (1 час).
 - ※ Точное расписание уточняйте у председателя
-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другие вопросы,**
 - пожалуйста, свяжитесь с нами
 - ☞ Юрид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ТОКСУ» : 조영관 변호사 (010-8848-7828)
 - ☞ Товарищество всех корейцев (KIN) : 최상구 대표 (010-8149-2643)
 - ☞ переводчик : Ше Дмитрий 서 드미트리 (010-2831-6208)

(Источник: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행사 주최 측은 참가자들을 위해 2개 코스를 준비했다. 첫째 코스는 1.35km로 산 하부 역부터 아스팔트로 포장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관광단지의 중간역까지 이르는 길이다. 이 코스 완주자들에게는 등산 완주 메달을 수여하고, 상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추첨권도 증정한다.

둘째 코스는 4.1km로 남서쪽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고르니 워즈두흐' 상부 역까지 이르는 길이다. 이 코스들의 범주에서 우승자와 수상자가 결정되며, 이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들은 행사 협찬으로부터 추첨을 통해 상당한 가치의 당첨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엑스트림 경주 개막식은 8월 10일(토) 오전 11시로 계획돼 있으며, 경주는 11시 20분에 시작된다. 참가자 접수는 해당 사이트에서 이뤄지며, 8월 8일부터 9일까지 스파르타크 경기장에서 오전 9시 -18시까지 참가자 등번호를 배부한다. 참가번호를 받는 사람은 의사가 발급한 건강진단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Экстремальный забег на гору Большевик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0 августа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дня физкультурника 10 авгу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ет экстремальный забег «Олимпийская вертикаль» на гору Большевик.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вовать в мероприятии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старше 12 лет и не имеющие медицинских противопоказаний.

У организаторов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дусмотрены два маршрута на выбор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Первая дистанция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1,35 км проходит от нижней до средней станци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 асфальтированному серпантину.

Все финишеры будут награждены медалью за восхождение и получат лотерейный билет для участия в розыгрыше призов.

Длина второго маршрута составляет 4,1 км и пролегает по юго-западному серпантину до верхней станции комплекса. В рамках этой дистанции будут определены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а все участники, завершившие забег, получат шанс выиграть ценные призы от партнера мероприяти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запланирована на 10 августа в 11:00, а старт забега будет дан в 11:20. Регистрация доступна по ссылке.

Выдача стартовых номеров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с 8-9 августа с 9:00 до 18:00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При получении номера участникам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копию медицинской справки.

사기꾼들, 사할린 주민들에게 2백50만 루블리 갈취

3명의 사할린 주민이 사기꾼에게 속아 약 2백50만 루블리를 잃었다고 사할린 지역 내부국이 전했다.

토마리 지역에서 44세의 남성이 '중개 회사 직원'의 속임수에 걸려 돈을 불리기 위해 중개회사 전문가들의 지도로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몇 주에 걸쳐 사기꾼들의 지시를 따라 저축한 돈을 투자한 후, 자신의 수익금을 인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 피해 남성이 받은 피해액은 2백만 루블리에 달했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70세의 남성에게 범집행기관 직원이라 사칭한 익명의 사람이 전화해 사기꾼이 신용정보를 이용해 은행에서 이 피해 남성의 현금을 인출하려 한다고 전했다. 피해 남성은 익명의 사기꾼의 지시에 따라 사기꾼이 제시한 은행 계좌로 20만 루블리를 이체했다고 전해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한 여성 주민이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연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위해 예약하기를 제안했다. 통화 중에 피해 여성은 자신의 의료보험의 번호를 받아적게 했고, 이후 '고스우슬루기' 사이트에 있는 피해여성

의 계정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메시지가 떴다. 그 다음 이 피해 여성에게 보안국 사칭 직원이 전화해 익명의 사람이 피해 여성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저축금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해서 피해 여성은 그대로 했다.

이 여성의 피해 금액은 28만5천 루블리에 달했다.

Мошенники обманули сахалинцев на 2,5 млн рублей

Трое сахалинцев потеряли в сумме почти 2,5 млн рублей, доверившись афериста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МВД.

44-летний житель Томари попался на уловки «сотрудника брокерской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й предложил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их специалиста начать инвестировать деньги, чтобы разбогатеть. За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соблюдая инструкции злоумышленников, потерпевший вкладывал сбережения. Только вывести их вместе с процентами мужчине не удалось. Сумма ущерба составила 2 млн рублей.

«70-летнему жителю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звонил неизвестный,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ился сотрудником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и сообщил, что мошенники пытаются по доверенности обналичить в банке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заявителя. Далее действуя по инструкции неизвестного, потерпевший перевел 2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продиктованный ему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 отметили в сообщении.

70-летней жительниц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звонил неизвестный, который предложил осуществить запись на диспансерное наблюдение по возрасту. В ходе разговора заявительница продиктовала ему номер своего СНИЛС. Затем ей написали, что в ее учетную запись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и» кто-то зашел.

После этого пенсионерке позвонил лже-сотрудник ФСБ. Он сказал, что неизвестные попытались похитить деньги с ее банковского счета.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сбережения, женщине нужно перевести их на «безопасный счет», что заявительница и сделала. Сумма ущерба составила 285 тысяч рублей.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бонус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Лужники

М²

Эконом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